

2009.2.10

글로벌 위기 이후의 패러다임 시프트

신현곤, 오정훈 외

Executive Summary

글로벌 위기 이후의 패러다임 시프트

□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

- 금번 불황은 Goldilocks 경제 하 버블형성과 붕괴과정에서 발생
- 과거에도 호황기 낙관주의 지속에 따른 자산버블과 설비과잉이 불황 초래
- 위기 후에는 항상 주도국가, 산업, 이념이 변화하는 패러다임 시프트 발생

□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변화 예상

-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 간 세계 경제 이슈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예상
- 팩스 달러리움도 서서히 약화될 것이나 글로벌 경제 전반의 침체 속에서 달러를 대체할 통화 부재로 달러 기축통화 지위는 당분간 유지할 전망
- 저성장 국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다이내믹스 변화(수출의존국과 자원의존국 성장탄력 둔화 반면 시장과 자원을 보유한 중국, 인도가 성장 견인)
- 시장실패 보완 및 경기부양 명목으로 정부 개입이 확대되고, 불황 극복 과정에서 신보호주의가 득세할 우려

□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도 신주도기업과 신성장산업 출현

- 호황기 시황에 편승했던 한계기업이나 외형성장에 치중했던 거품기업 몰락 반면 Cash·원가·기술 경쟁력 보유기업들이 위기 이후 리더로 부상
- 호황기를 주도했던 소재·에너지·금융업의 수익성이 둔화되고, 선진국을 중심으로 R&D 기반과 소프트 경쟁력을 활용한 신성장산업 출현 예상
- 기존 산업과 융합-대체-확산이 용이한 Green Technology 부상

□ 불황기 이후 기업경영 키워드는 공존 경영

- 환경, 윤리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 미래 생존력은 시장·정부·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좌우



Contents

목 차

I. 경제위기와 패러다임 변화	1
II. 경제 패러다임: 新 국제 경제 질서의 태동	4
III. 경영 패러다임: 산업 재편과 경영 이념의 변화	7
IV. 기업경영에 대한 시사점	10

I. 경제위기와 패러다임 변화

1. 글로벌 위기,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 변화 계기

□ 금변 위기는 과도한 낙관과 제동장치가 부실한 금융자본주의가 부른 참사

-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는 고성장-저물가 국면이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해 낙관주의 팽배
- 그러나 저금리와 파생상품 발달로 급팽창한 유동성이 부동산, 원자재 시장 등에 유입되면서 막대한 버블 누적
- 특히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에도 자본유입으로 부동산 급등세가 지속되었고 결국 서브프라임 부실 촉발로 버블 붕괴 돌입

□ 위기를 계기로 시장의 조절능력, 탈규제에 대한 회의론 확산

- 2009 다보스 포럼 참가자 중 50.8%가 위기발생 원인으로 ‘시장자본주의에 대한 과신’을 지적하였고, 향후 G20 정책 우선순위로 글로벌 규제 장치 마련(40.6%), 레버리지 규제(21.3%) 등을 제시

〈골디락스 경제하 버블 형성과 붕괴 메커니즘〉



2. 자본주의 역사는 호황과 불황의 대순환 과정이 반복

□ 영국, 산업혁명과 빅토리안 붐 이후 극심한 불황 도래

- 1820년대: 나폴레옹 전쟁 승리와 함께 섬유기술 혁신, 증기기관 활용 확산으로 대호황 구가 → 남미 금광과 운하, 미국 철도채권 등 이머징 마켓 투기 급증 → 1830년대 버블붕괴로 주가 80% 하락
- 1870년대: 철도, 석탄, 철강기술 혁명으로 빅토리안 붐 도래 → 면화와 철강 투기 물결로 전세계 면 생산 2/3, 철강 생산 1/2 차지 → 과잉능력 누적으로 불황 도래(조선업 34%, 철강업 22%가 실업자 전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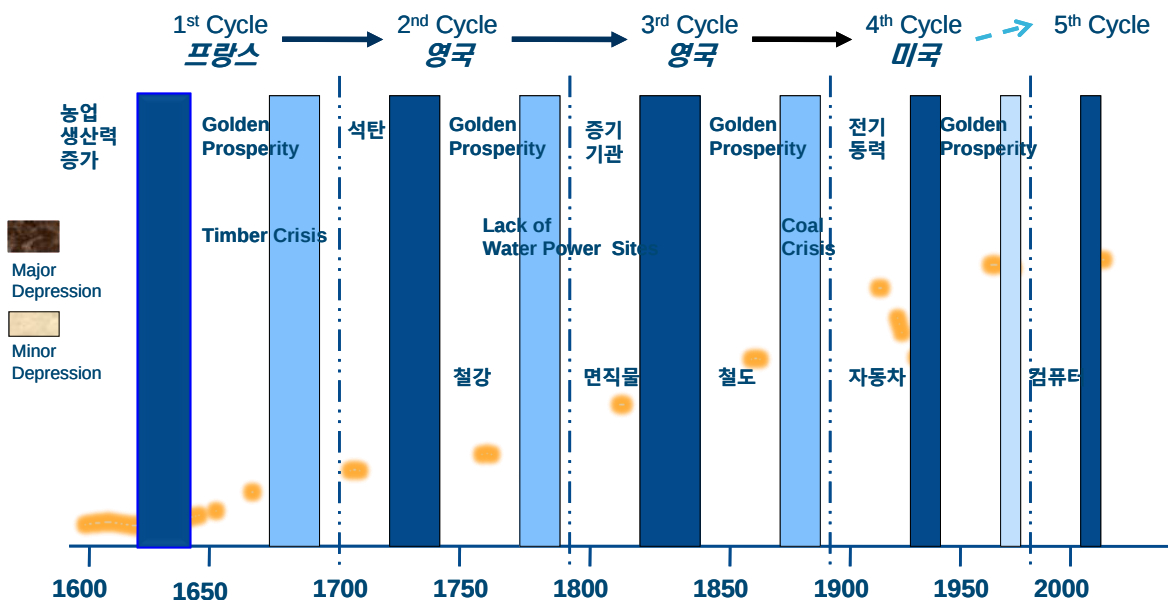
□ 대공황도 ‘격동의 20년대, 경제번영 승리 10년’에 뒤이은 산물

- 1927년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및 1929년 후버 대통령 취임사 ‘빈곤에 대한 최후의 승리’ 선언 등 낙관주의가 팽배하면서 주식 광풍 발생 (미국인 대다수가 용자를 받아 주식 투자)
- 1929년 주식시장 붕괴 후 10주간 다우지수 50% 하락, 이후 3년간 고점 대비 89% 하락 → 1만개 은행 파산, 실업률 25%(1932년), 물가 4년간 24% 하락

※ 과거 위기 역시 이번 금융위기처럼 과도한 낙관주의가 주 원인

- 호황기 투기와 결합 과잉공급과 자산 버블 유발

〈콘트라티에프 파동으로 본 자본주의 순환과정〉



3. 큰 위기 뒤에는 항상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

□ 위기를 전후로 새로운 주도 국가와 주도 기술, 산업이 출현

- 19세기 후반 대불황은 영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후발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이 부상하는 계기 제공. 미국 역시 대공황 극복과정에서 초강대국으로 등극
- 한편 불황기를 전후한 신기술(1870년대 철도 및 철강기술, 1920년대 전기 및 자동차산업)의 도입과 확산은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반면 투기를 가져와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
 - 2000년대 이후는 금융부문의 파생상품과 중국이라는 신시장이 세계 경제성장과 버블의 촉진요인으로 작용

□ 경제 이념, 정치 리더십 등에서도 변화 초래

- 대공황은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케인즈적 경제 처방을 확산시켰고,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치 리더십 이전(※경제 고통 심화 과정에서 파시즘과 공산주의 확산)
 - 19세기 영국 대불황기에는 A.Smith의 자유방임주의 경제 사상이 국가 중심의 중상주의를 대체하는 이념으로 등장,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자유주의 정당이 집권하는 계기
- 기업경영에 있어서 비판주의와 보수주의가 확산되면서 위험회피 성향과 안정·내실지향의 기업문화 확산(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)

□ 금번 위기 역시 경제, 경영 전반에 걸쳐 구조·성과·행태(S-C-P)면에서 몇 가지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



II. 경제 패러다임: 新 국제 경제 질서의 태동

1. 미국 경제 리더십 및 파스 달러리움 약화

□ 199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미국 중심 일극 체제 점진 약화

- 금융시스템 및 중국경제의 향배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미국을 선두로 중국, 일본, EU 등의 각축이 예상
- 특히 불황 극복을 위한 다자체제인 G20에서 선진국 대표인 미국과 신흥국 대표인 중국 간에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



□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달러수요 지속 감소

- 막대한 무역적자에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재정적자 급증까지 더해져 달러가치 지속 하락 예상
- 또한 IB 몰락과 금융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미국이 독점해왔던 금융주도권 약화도 달러 약세를 가속화시킬 전망

□ 그러나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일정기간 유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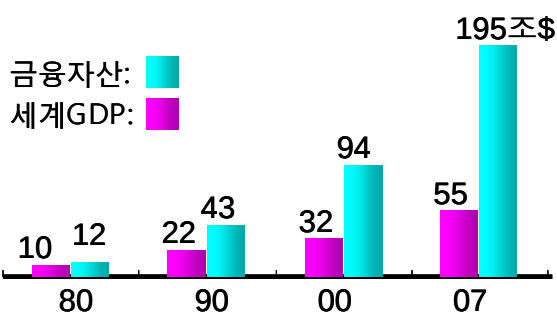
- 금융시스템 운용능력, '경제력+정치·군사력+문화력' 등에서 달러를 대체할 통화 부재
- 전세계 외환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 86.3%로 압도적

2. 저성장 시대 진입과 지역별 성장 다이내믹스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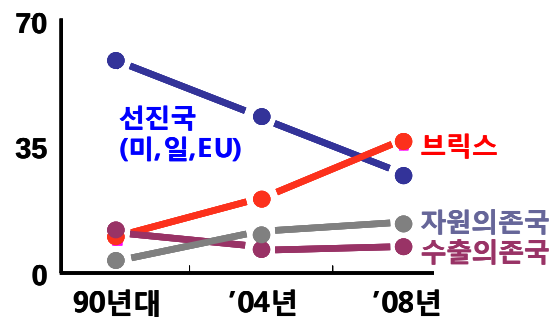
□ 지금까지 ‘글로벌 유동성’과 ‘신흥시장’이 세계 경제를 견인

- 저금리 기조 지속과 금융자산 축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급팽창하면서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
- 브릭스를 필두로 한 신흥국들의 고성장이 이어지면서 교역량 증대, 원자재 수요 급증으로 자원보유국과 수출국가들도 성장세 확대

전세계 금융자산과 GDP(조\$)



세계성장 기여도(%)



□ 유동성 축소와 위험회피 성향 확산이 전반적 경제성장 둔화 야기

-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이 계속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커지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 예상
- 빚을 내서 투자나 소비를 하는 행태도 줄어들 전망.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기조 확산 및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소비성향도 급락
- 결국,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위험 회피성향은 글로벌 M&A와 FDI를 위축시키면서 세계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전망

□ 특히 ‘수출의존형’ 국가와 ‘자원의존형’ 국가의 성장탄력 둔화

- 신흥국 간 성장격차가 확대될 전망. 상당 기간 교역이 위축되고 원자재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자원보유국(중동, 아프리카)과 수출의존국(아세안, 한국) 성장세 둔화
-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‘시장’과 ‘자원’을 겸비한 중국, 인도 등이 저성장 기조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이 기대

3. 신자유주의 퇴조와 정부 역할 강화

□ 20세기 후 자본주의는 ‘시장’과 ‘국가’가 번갈아 가며 주도권 행사

- 경제상황과 시대적 이념, 가치관에 따라 시장주도 패러다임과 국가주도 패러다임이 정반합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발전
- ‘레이거노믹스’와 ‘대처리즘’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등장 이후 소련 등 공산주의 몰락을 계기로 주도적 이념으로 등극
-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을 내놓지 못했던 케인즈 경제학의 대안으로 신자유주의가 주도 이념으로 등장



□ 향후 시장실패 보완 및 경기부양 명목으로 정부 개입 확대 예상

-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 중심의 케인즈적 처방이 중시될 전망
-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확대, 국유화, 금융규제 조치 단행
- ※ 미 국가정보위원회(NIC) 보고서 ‘글로벌 트렌드: 2025’는 당분간 세계는 국가자본주의(State Capitalism)가 득세할 것으로 전망

□ 세계 각국, 불황 대처 과정에서 신보호주의 득세 가능성

- 자국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나 금융지원 확대, 환경산업이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R&D 지원 확대
- 국가차원에서 국제표준과 기준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, 통상압력 등 비관세 장벽도 강화될 조짐(대공황기에도 각국의 보호주의가 무역전쟁으로 이어져 경제불황을 가속)

※ 2009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, 보호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 표명

- 특히 자동차 Big3 지원, Buy America 조항 입법화 등 미국발 보호주의 확산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 표출
- 구리아 OECD 사무총장, 각국 정부가 보호주의와 국수주의에 굴복할 경우 금융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

Ⅲ. 경영 패러다임: 산업 재편과 경영 이념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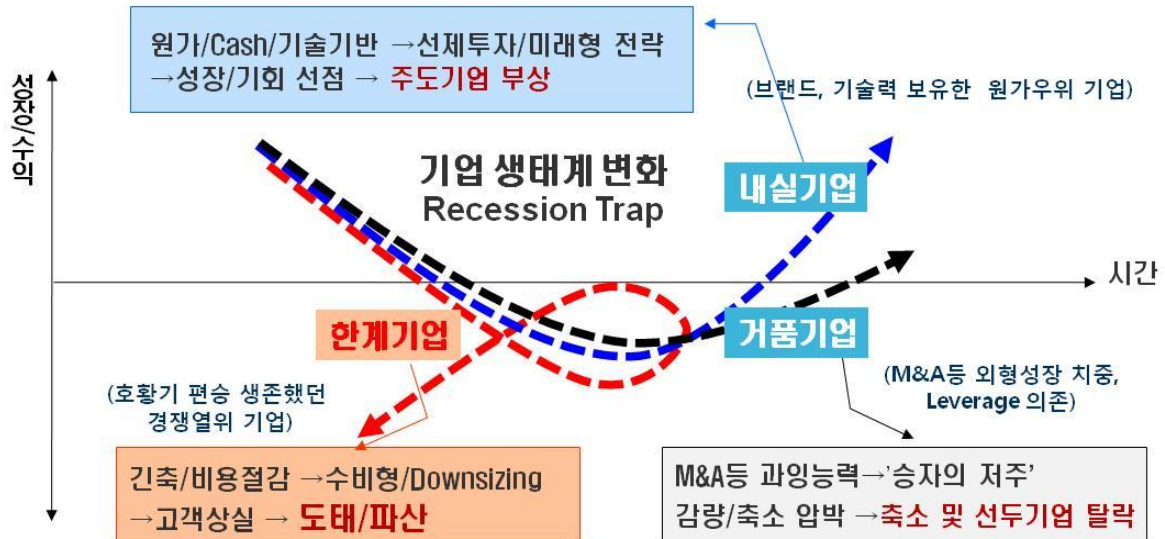
1. 산업재편과 신주도기업의 등장

□ 불황기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가장 크게 변화하는 시기

- 불황은 모두에게 고통이지만, 새로운 강자가 도래하는 계기
- IT 버블 붕괴 후 미 상장기업 상위 25% 중 40%가 탈락(매킨지, 2007). 대공황 이후에도 미 자동차, 300개사에서 4개사로 압축

□ 적자생존의 ‘정글 법칙’이 지배하면서 기업 간 우열도 변화

- 자금조달 난관, 수요부진에 따른 경쟁격화로 호황기 생존수단 더 이상 적용 곤란
 - 호황기 시황에 편승했던 한계기업들은 도산이나 피인수될 전망
 - M&A 등을 통해 과속 성장 했던 거품기업들도 ‘승자의 저주’ 직면



□ 반면 Cash, 원가 및 기술경쟁력 보유기업들은 위기 이후 업계 리더로 부상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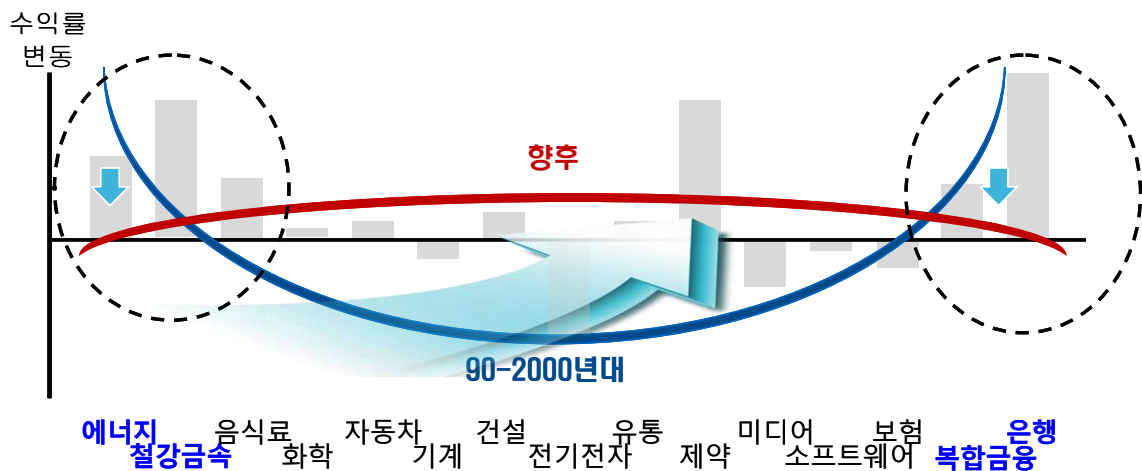
- 한계기업과 거품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수비형 전략을 취하는 동안 경쟁 우위 기업들은 유망 분야에 선제적 투자, 미래형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성장 기회 선점

2. 산업 간 수익격차 축소와 신성장산업 등장

□ 글로벌 호황기를 이끌었던 자원 다소비 업종과 금융산업 수익성 둔화 예상

- 1990년대 대비 2000년대 산업별 수익률 변동을 비교해 보면, 원자재 붐과 파생상품 붐을 타고 소재/에너지/복합금융/은행업 등이 약진
- 그러나 불황 지속으로 기존산업 간 수익률 격차는 점차 축소될 전망

<글로벌 100대 기업 산업별 순이익률 변화 (자료: 톰슨 리서치)>



□ 나아가 기술기반의 신성장 분야로 산업의 주도권 이전 예상

-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은 선진국들은 R&D 기반과 소프트 경쟁력을 활용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 노력 추구

※ 제조업 Life Cycle: 미국(1950~1960년) → 일본(1970~1980년) →

NIEs(1980~1990년) → 중국(2000년대)

- 특히 기존산업과 융합-대체-확산이 용이한 ‘Green Technology’ 분야 급격히 부상 예상

※ 선진국, 그린 산업 주도권 확보경쟁 치열

- 미국, 뉴 아폴로 프로젝트: 10년간 1,500억 달러를 클린 에너지 산업에 투자. 전력의 25%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(2025년)
- 일본, 후쿠다 비전: 2050년까지 CO₂ 배출량 20%~40% 감축. 태양광, 연료전지, 고효율 천연가스 화력발전 핵심육성기술로 선정
- EU: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등 강력한 환경규제로 비관세 장벽 구축

3. 불황기 이후 기업경영 키워드는 ‘공존 경영’

□ 기업 내: ‘성장’보다 ‘내실’에 치중하는 경영 행태

- 차입이나 M&A를 통해 외형을 불리는 전략은 상당기간 적용 곤란
-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상시적 리스크 관리와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내실 경영 확산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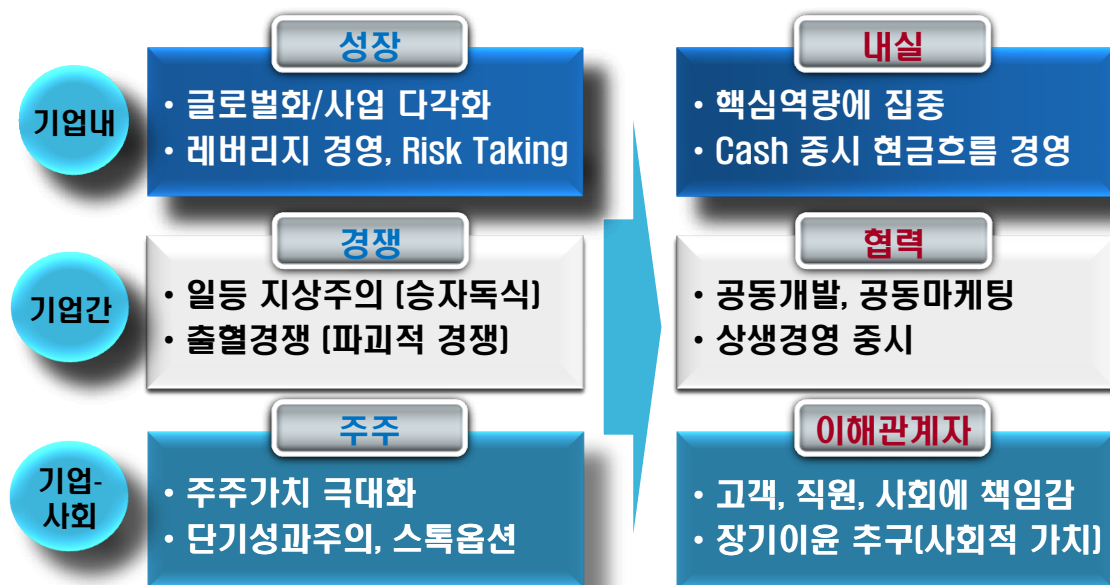
□ 기업 간: ‘경쟁’ 일변도에서 ‘협력’을 중시하는 분위기 확산

-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일등 지상주의가 출혈 경쟁과 파괴적 경쟁을 유발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
- 경쟁자 간 공동개발, 공동마케팅이 활발해지고 대기업-중소기업 간 상생 경영 중시 예상

□ 기업-사회: ‘주주 중시’ 경영에서 ‘이해관계자 중시’ 경영 부각

- 주주가치 극대화에 입각한 영미식 성과보수주의가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성과주의와 과도한 리스크를 유발했다는 반성
- 고객, 직원, 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‘부’와 ‘이윤’을 창조하려는 공감대 형성

☞ 결국 기업 미래 생존력은 시장·정부·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



IV. 기업경영에 대한 시사점

□ 향후 수년간은 패러다임 급변의 시기

- 국제 경제 질서 개편 및 정부 개입, 신보호주의 강화
- 산업 구조조정 가속, 신성장 산업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심화 예상
- ☞ 수출 및 판매 전략, 외환 및 재무전략, 글로벌 성장 및 다각화, 원가 및 경쟁 전략 등 경영 각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
- 기업들은 패러다임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선제적으로 흡수 적용함으로써 위협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

□ 상당기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

- 상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및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내실 경영 지향의 전략 추진으로 위기 이후의 새로운 사업기회(구조조정 M&A, 신성장 분야 진출)에 대비

□ 다극화된 경제 질서에서 새로운 가치창출 원천을 찾는 노력 강화

- ‘선진국 소비시장, 신흥국 생산기지’라는 전통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철저한 현지화(생산 현지화→판매 현지화, R&D 현지화, 인력 현지화)
- 신흥경제권 소비자들의 선호와 문화를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제공, 현지 인력 채용으로 소통 활성화 및 문화장벽 제거

□ 사회,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존 경영 추구

- 기업의 사회적 활동 강화가 장기적 성장과 기업의 지속성(Sustainability)에 도움이 된다는 능동적 사고 필요
- 나아가 세계 기업시민(Global Corporate Citizenship)으로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핵심 글로벌화 전략으로 추진

신현곤 수석연구위원 (e-mail: hgshin@posri.re.kr)
오정훈 연구위원 (e-mail: ohjh@posri.re.kr)

☞ 이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
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.